

'97년 새해를 맞이하여...



柳 纘·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

'97년 새해에는

정부에서도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력 개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방산업계도

이를 계기로 경영의 합리화와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再跳躍의 轉機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丁丑 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관계당국,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本會에서 발행하는 국방전문지 月刊〈國防과 技術〉이 이번호로 창간 18돌을 맞이한 것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면서, 그동안 맡은 바 소任을 다해 온 편집관계자와 취재 협조 및 寄稿를 통해 聲援과 助言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자주국방의 초석을 튼튼히 하며 우리에게 많은 自矜心を 안겨주었으나 최근 소요물량의 한계와 해외수출 부진 등으로 가동률이 민수부문의 82.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일각에선 脫冷戰의 조류에 편승하여 安保不感症이 만연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방산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北韓은 金日成 死後에도 부자세습에 의한 遺訓統治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 있는 가운데서도 무리하게 무력증강을 계속하고, 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해 귀중한 우리 국민의 인명을 살상하는 등 변치않는 한반도 적화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周邊強國들도 이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연히 군비확충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안보환경하에서 「強者存」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主敵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자주 국방과 이를 위한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이 중차대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97년 새해에는 정부에서도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력 개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방산업계도 이를 계기로 경영의 합리화와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再跳躍의 轉機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本會에서도 새해를 “방위산업 육성기반 강화 및 방위산업 활로 모색의 해”로 설정하고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韓國防衛産業振興會의 발전과 月刊〈國防과 技術〉誌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당국, 국군장병과 방산업계,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